

>> OnExpo HOT & COOL

“무료로 홍보와 네트워크 두 마리 토끼를 한번에”

디지털콘텐츠 기업들의 사이버 전시장 ‘온엑스포’

디지털콘텐츠 ‘사이버 박람회’라는 모토로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에서 운영하는 온엑스포(www.onexpo.or.kr).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전자책, 게임, 무선인터넷 콘텐츠 등으로 디지털 콘텐츠를 분류해 인터넷상에 상설전시 함으로써 시공(時空)의 제한없이 제품전시 및 해외 마케팅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월간 〈디지털콘텐츠〉는 온엑스포 입점업체를 소개해 우수 개발업체를 발굴하고, 기업 간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HOT Company 엑스넷
최첨단 IT 기술과 전시 컨벤션의 만남
컨벤션과 세미나 참관객 실시간 데이터 전송 … RF기술, 바코드 방식보다 효율적

세계적으로 컨벤션 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국제회의 기획, 전시부스제작, 영상장비, 컨벤션 전문가 양성 교육 등 이른바 컨벤션 후방 산업이 신종 유망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올해도 제주국제컨벤션센터가 문을 열고 고양, 창원, 수원 등에 대형 국제 컨벤션센터가 잇달아 설립될 예정이어서 이들 산업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최첨단 정보기술을 이용해 컨벤션 후방 사업에서의 약진을 보이고 있는 엑스넷을 만나보았다.

오숙현 온엑스포(onexpo.or.kr) 마케터

국내 전시회 및 각종 컨벤션 사업을 대표하고 있는 엑스넷
은 민주당, 한나라당 전자투표시스템으로 알려져 있는 기업이다. 전시회 및 각종 컨벤션 사업에 RF(Radio Frequency) 기술을 도입한 ‘전자명함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다. 특히 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한 실시간 데이터 수집 및 관리 시스템은 컨벤션 산업에 최적화된 솔루션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국내 10대 전시회를 포함한 연간 200회 이상의 전시회 및 고객관리업무에 자사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전자 명함 시스템’ … 참관객 관심분야 실시간 파악

엑스넷은 RF기술을 전자명함(E-name) 카드에 적용시켜 전시회나 컨벤션 산업의 ‘등록시스템’에 도입했다. 전자명함(E-name) 카드란 비접촉식 IC(Integrated Circuit) 카드로써 M/S(Magnetic Stripe) 카드나 바코드 시스템과 비교해 훨씬 쉽고 빠른 운영이 가능하다.

0.1초 내에 정보를 전달시킬 수 있는 RF기술은 참관객의 등록 및 참관시간을 대폭 절감시키고, 참가업체는 참관객 정보



이중 작업을 막아준다. 또한 현장에서 온-오프라인 서비스의 즉각적인 이용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서라도 참관객의 방문순자 및 관심 분야나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웹기반으로 조성돼 짧은 전시 기간 동안 효율적인 전략을 세우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접촉이 필요치 않아 마모로 인한 손상이 전혀 없고 인식 에러율도 거의 없다는 것이 회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데이터 수집능력이 우수해 1999년 바코드 시스템으로 운영되었던 KOBA 전시회보다 2000년도 KOBA 전시회 때는 엑스넷의 전자명함 시스템을 이용해 8배 이상의 데이터 수집을 가능하게 한 실례도 있다.

VDMS(Visitor Data Management System)는 참관객이 온라인상으로 등록하거나 전시장 입구에서 등록신청서를 작성함으로써 등록이 가능하다. 참관객이 RF칩이 탑재된 전자명함(목걸이형 출입증)을 목에 걸고 각 참가업체 부스에 있는 카드리더기에 전자명함을 근접시키면 참관객의 정보는 리더기와 프린터로 자동 전송되며, 참가업체는 즉시 참관객의 정보를 알 수 있고 각 부스에 있는 참관객의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체크돼 참가업체는 당일 즉시 참관객의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편리한 시스템이다.

VDMS가 전시회 참가자를 위한 시스템이라면 SVMS(Seminar Visitor Management System)는 세미나 참가자를 위한 시스템이다. 온라인으로 사전등록한 세미나 참가자들이 출입증(전자명함)을 부여받고 각 세미나가 진행되는 트랙 앞에 놓여있는 리더기에 근접시키면 참가자가 신청하지 않는 트랙의 리더기는 램프 등으로 그 사실을 가르쳐 주는 시스템이다.

엑스넷이 개발한 음성가이드 시스템(TALKY)은 MP3 기술

수집과 가공에 별다른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전시회 관람객의 정보는 마케팅 툴로 사용하기 쉽게 데이터베이스(DB)를 엑셀파일 형태로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어

을 바탕으로 제작한 깨끗하고 명확한 음질로 각종 행사와 전시 품에 대한 안내, 홍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 외에도 엑스넷은 WCM(Wireless LAN Control Module), 출입통제시스템, CRM 솔루션 등 전시회 및 고객관리업무에 필요한 시스템을 제공한다.

국내외 전시정보 종합화한 '비즈맥'

비즈맥(www.bizmag.co.kr)은 엑스넷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전시전문 포탈 사이트'이다. 2000년 10월 6일 비즈맥 뉴스레터 첫 발간을 시작으로 2003년 1월 현재 50만명의 회원에게 e-매거진을 발송하고 있으며 국내외 유명 전시회 정보를 중심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 전시회 정보, 세미나 정보가 제공되고 국내전시검색 기능이 있어 산업별, 연보별, 월별, 장소별로 검색할 수 있고 참관후기, 전시회 알리기를 통해 이미 참관한 방문객의 후기를 확인 할 수 있다.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테마전시는 관리자의 추천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술 관련 전시 및 일반인들도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최근 전시정보가 제공된다. 비즈맥은 국내 전시 일정뿐만 아니라 각 국가별로 개최되는 국제 전시회를 소개하며, 참관단을 모집중인 전시회도 별도로 소개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 상담신청을 통해 전시 컨벤션 관련 기획에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도 있다.

전시정보를 보다 빠르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비즈맥 툴바'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와 연동해 작동하는 프로그램으로 전시전문 검색 서비스, 비즈맥 주요 서비스, 전시관련 실시간 뉴스 서비스 등으로 구성돼 있다. 비즈맥에서 제공하는 국내, 해외, 테마 전시를 모두 검색할 수 있으며, 비즈맥에서 제공하는 최근의 매거진을 볼 수 있는 페이지로 빠르게 이동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전시 컨벤션의 다양한 솔루션과 서비스를 바탕으로 각종 전시회, 컨벤션 산업의 대중화 실현 및 선진 전시 문화를 확산시키고, 기업의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도와 전시산업의 국제화 선도에 엑스넷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한다.

